

2015 / 06 / 12 (FRI)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소폭 하락.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와 엔저 완화에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주요 대형 IT주들이 약세.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솔브레인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파트론, 원익 IPS, 컴투스, LG디스플레이 약세.

종목별로는 카메라모듈 신제품 효과로 인한 실적개선 기대감에 LG이노텍이 3.2%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1.85	-0.5%	-6.8%	341 억	-1,360 억
KRX Semicon	1,955.95	-0.7%	4.2%	-317 억	-521 억
(코) 반도체	1,005.42	-0.4%	26.1%	-10 억	5 억
(코) IT H/W	413.49	-0.9%	18.6%	-124 억	-25 억
(코) IT S/W	2,250.55	-0.2%	12.6%	-119 억	61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57,000	-0.4%	-5.3%	-401 억	-244 억
LG전자	53,100	0.6%	-10.2%	-113 억	74 억
삼성SDI	113,500	0.4%	-2.2%	78 억	-95 억
삼성테크윈	33,800	0.9%	41.7%	77 억	-24 억
서울반도체	16,050	-2.7%	-20.5%	-3 억	-28 억
신도리코	66,100	-0.8%	-2.5%	2 억	-4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7,100	-0.8%	-1.4%	59 억	-200 억
이오테크닉스	105,000	1.9%	-16.2%	9 억	-4 억
월익IPS	14,150	-3.7%	1.4%	-32 억	-2 억
리노공업	48,600	-2.1%	26.9%	1 억	-6 억
유진테크	17,650	0.0%	9.3%	-2 억	1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8,500	2.7%	-8.5%	25 억	32 억
SK C&C	254,500	-3.0%	19.2%	70 억	-133 억
포스코 ICT	5,020	0.9%	-5.3%	1 억	0 억
다우기술	16,800	-3.4%	40.6%	5 억	-13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66,000	-0.4%	-20.5%	652 억	-710 억
다음카카오	114,500	-1.3%	-7.4%	-11 억	-29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7,500	-1.8%	-18.3%	-30 억	-74 억
에스에프에이	45,500	-1.6%	-8.4%	-5 억	7 억
솔브레인	49,500	3.4%	54.0%	26 억	-12 억
덕산하이메탈	9,150	-0.5%	-17.9%	-1 억	2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7,900	1.0%	5.9%	-81 억	50 억
LG이노텍	103,000	3.2%	-8.4%	-75 억	189 억
파트론	9,080	-7.1%	-22.7%	-50 억	-18 억
루멘스	4,820	-0.2%	-31.6%	-6 억	-2 억
일진디스플레이	9,660	-1.4%	41.6%	29 억	-2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6,000	2.5%	2.2%	143 억	-65 억
컴투스	129,300	-3.1%	-1.5%	-80 억	21 억
NHN엔터테인먼트	57,100	1.4%	-34.7%	-31 억	14 억
게임빌	97,500	0.3%	-19.2%	24 억	3 억
위메이드	41,000	1.2%	8.5%	2 억	-1 억
선데이토즈	17,700	-4.1%	2.9%	-2 억	3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52,000	7.9%	502.0%	-2 억	-1 억
한글과컴퓨터	18,450	-1.9%	-8.7%	-4 억	1 억
코나아이	32,750	0.5%	-2.8%	4 억	-3 억
슈프리카	20,550	-0.5%	-19.3%	0 억	3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34	0.0%	4.3%
MSCI Internet	160.27	-0.3%	4.9%
MSCI Software	171.49	0.0%	4.8%
MSCI Semicon	220.87	0.3%	0.3%
MSCI IT Services	125.47	0.1%	6.6%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0.04	-0.5%	3.7%
Facebook	81.83	-0.4%	4.9%
Tencent	154.30	0.7%	37.2%
Baidu	206.77	1.0%	-9.3%
Yahoo	40.94	-2.7%	-18.9%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44	-0.4%	0.0%
Oracle	44.28	0.8%	-1.5%
SAP	74.20	0.1%	6.5%
EMC	27.30	1.1%	-8.2%
Symantec	23.80	0.1%	-7.2%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8.59	-0.2%	16.5%
Nokia	7.22	-0.3%	-8.1%
Lenovo	11.18	-0.2%	9.6%
ZTE	22.20	1.1%	31.8%
HTC	75.5	-1.0%	-46.8%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85	0.1%	-12.2%
Qualcomm	67.60	0.4%	-9.1%
Texas Instruments	53.64	-1.0%	0.3%
Micron	25.02	-0.7%	-28.5%
Toshiba	441	-0.3%	-13.9%
Renesas	938	-0.7%	14.0%
STMicro	8.41	-0.1%	12.6%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8.78	-0.1%	5.2%
HP	32.52	-1.2%	-19.0%
Accenture	96.92	0.4%	8.5%
Fujitsu	712	1.8%	10.6%
NTT Data	5,440	2.3%	20.5%
CSC	69.38	2.8%	10.0%

Hardware	close	1D	YTD
GE	27.51	-0.4%	8.9%
Panasonic	1,760	2.7%	23.3%
SONY	3,760	2.9%	52.1%
Whirlpool	186.73	0.4%	-3.6%
Electrolux	261.80	1.2%	14.4%
Haier	22.05	1.8%	19.4%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19,300	1.8%	45.7%
KYOCERA	6,521	-0.6%	17.4%
Nidec	8,891	0.7%	13.2%
TDK	9,920	2.1%	38.5%
Ibiden	2,163	0.2%	21.0%

Display	close	1D	YTD
Sharp	172	1.8%	-35.8%
Japan Display	553	6.1%	49.5%
AUO	4.73	-3.3%	-7.1%
Innolux	16.05	-3.3%	4.2%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652 억	삼성전자	-401 억
엔씨소프트	143 억	LG전자	-113 억
삼성SDI	78 억	삼성전기	-81 억
삼성테크윈	77 억	컴투스	-80 억
SK C&C	70 억	LG이노텍	-75 억
SK하이닉스	59 억	파트론	-50 억
일진디스플레이	29 억	월익IPS	-32 억
솔브레인	26 억	NHN엔터	-31 억
삼성에스디에	25 억	LG디스플레이	-30 억
게임빌	24 억	KH바텍	-18 억
블루콤	21 억	한국사이버결	-13 억
OCI머티리얼	15 억	지트리비엔티	-11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LG이노텍	189 억	NAVER	-710 억
LG전자	74 억	삼성전자	-244 억
삼성전기	50 억	SK하이닉스	-200 억
KG이니시스	42 억	SK C&C	-133 억
삼성에스디에	32 억	삼성SDI	-95 억
컴투스	21 억	LG디스플레이	-74 억
블루콤	19 억	엔씨소프트	-65 억
아나패스	18 억	다음카카오	-29 억
비아트론	17 억	서울반도체	-28 억
OCI머티리얼	16 억	삼성테크윈	-24 억
NHN엔터	14 억	일진디스플레이	-22 억
웹젠	13 억	파트론	-18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7004.35	-0.2%	-7.7%
DDR3 2Gb (Spot)	1.66 \$	0.0%	-24.9%
NAND 64Gb (Spot)	2.64 \$	1.1%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4.5%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이노텍	3.2%	최근이슈

News & Issue

LG이노텍, 카메라모듈 신제품 효과 주목

LG이노텍이 캐쉬카우인 카메라모듈 신제품 효과는 예년보다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 것이고, LED 사업부는 적자 축소 추세에 있으며, 전장부품도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강세. 이익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부각될 전망.

주요 고객사 대상 신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양산 시점은 이르면 3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또 올해 카메라 모듈의 화소수 향상 등 성능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

카메라 모듈은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하반기 국내 주요 고객사로 프리미엄급 신규 카메라가 추가로 공급될 가능성도 존재.

하반기에는 아이폰6S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규 기기인 애플 워치 역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전망이다. 애플워치 판매량 전망치는 1,500만대~4,000만대. 예측범위가 커 판매량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기존 스마트 워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편 2분기 실적은 중국과 대만 경쟁사 Capa 증설과 2월 춘절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재고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조명 매출 확대추세가 이어져 적자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또한 하반기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회계적 비용 감소로 내년까지 적자폭 감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4분기는 BEP 수준까지 개선될 가능성 존재.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687억 원으로 전망됨.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2.5%	최근이슈

News & Issue

엔씨소프트, 중장기적 펀더멘털개선 기대

엔씨소프트가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강세. 올해 2분기부터 '리니지1' 이벤트를 확대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라인업은 계획대로 연내에 출시될 예정.

이벤트 효과를 반영한 매출추정치는 약 792억원. 변수는 있겠지만 하반기 중 추가적인 이벤트 효과가 예상되며 '길드워2' 확장팩 판매성과 기대감에 하반기까지 실적개선 기초가 이어질 전망이다.

확장팩 흥행에 기반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신규게임의 흥행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보유. 하반기 중 'MxM' 국내, '블레이드앤소울' 북미유럽, '길드워2' 확장팩 북미유럽 등의 온라인 게임과 다양한 모바일게임이 국내외 출시될 전망이다.

News & Issue

엔씨, 美 실리콘밸리에 스튜디오 설립

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올해 하반기 국내외에서 모바일 경쟁력 강화에 나서 주목.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모바일 게임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 자체 모바일 게임 개발력 강화를 위한 전략.

특히 엔씨는 지난해 11월 북미 모바일 개발 총괄임원으로 선임된 제시 테일러를 중심으로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 제시 테일러는 EA, 세가, 남코 등을 거친 게임 개발 전문가.

국내에서는 자사 지적재산(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과 자회사를 통한 캐주얼 모바일 게임에 집중할 계획. 엔씨는 기존 인기 IP를 활용한 '블스 모바일' '아이온 레기온즈'뿐만 아니라 패션을 소재로 한 '패션 스트리트'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 자회사인 엔트리브소프트를 통해서도 가벼운 모바일 게임을 선보일 예정.

이 밖에 엔씨는 개발력을 갖춘 중소 개발사에도 투자해 새로운 협력 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실제 엔씨는 올해 1월 도통치게임즈에 3억 원, 2월 아라소판단과 바이너리에 각각 3억 원과 20억 원의 투자를 단행. 이들 회사는 모두 10인 이하의 소규모 모바일 개발 스타트업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반 게임을 개발 중.

엔씨 관계자는 "지난 2월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 1위 넷마블게임즈와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면서 "양사의 강점과 역량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 효과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라고 언급.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업계동향

News & Issue

삼성디스플레이 소형 OLED 원가 대폭 축소, LCD와 격차 좁혀

삼성디스플레이의 소형 OLED 패널 원가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사양이 같은 LCD와의 가격 차이를 3달러 수준으로 좁힘. 이는 수출 개선 활동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됨.

11일 IHS가 최근 발간한 OLED 패널 원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삼성디스플레이의 5인치 풀HD 해상도 OLED 패널 생산원가는 20.5달러로 추정. 이는 작년 같은 기간(23.37달러) 대비 12.2% 감소한 것.

이 생산원가에는 재료비, 인건비, 공장 감가상각비가 모두 포함. 같은 기간 저온실리콘다결정화(Low Temperature Poly Silicon, LTPS) 공정으로 생산되는 동일 화면 크기 및 해상도의 LCD 패널 원가는 OLED보다 16.4% 저렴한 17.6달러. 삼성이 OLED 패널을 첫 양산하던 시기에는 OLED 패널의 원가가 LCD 대비 4배 이상 비쌌. 이 같은 격차가 단지 16% 가량 높은 수준으로 좁혀진 것.

OLED 패널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근본적으로는 LCD 대비 원가 구조에서 유리. 현재 원가가 높은 이유는 수출이 낮기 때문. 삼성디스플레이가 현재 70%대인 수출을 80%대로 끌어올리면 LCD와 동등한 수준의 원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85% 이상이라면 LCD보다 원가가 저렴해짐. 이 상태에서 공장 감가상각 비용까지 모두 털어버리면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이처럼 높아진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제조업체를 신규 고객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음. 다만 최근 일본의 재팬디스플레이(JDI)가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소형 LCD 패널을 공급하는 등 경쟁 심화에 따른 확판의 어려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짐.

AUO 같은 대만 업체들도 비정질실리콘(a-Si) 기판 기반의 '저렴한' 패블릿 패널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가격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질'보다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 구매 조건으로 보는 만큼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으로 OLED 패널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85%의 수출을 달성해야만 한다"고 언급.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업계동향

News & Issue

치열해지는 모바일 검색 경쟁, '손끝 사로잡기에 총력'

구글, 네이버,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검색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섬. PC보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먼저 구글은 모바일 친화도를 반영한 검색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음. 모바일 친화적인 페이지가 아니라면 검색에서 밀려나는 구조. 유입량이 큰 웹사이트일수록 검색 알고리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이는 경우에 따라 PC와 스마트 기기에서의 검색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또한 앱 인덱싱 검색 서비스로 모바일 검색 결과와 앱의 특정 콘텐츠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 쉽게 말해 검색엔진이 앱의 콘텐츠를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검색 결과에서 보여주는 방식. 지역이나 국가, 사용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지므로 앱 콘텐츠만 우수하다면 글로벌 사용자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의미.

네이버는 검색 자체를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음. 정확하게는 어떤 플랫폼이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는 목표. 예컨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많은 검색 결과 가운데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 쇼핑만 하더라도 실제 구매까지 걸리는 단계를 줄이고 이미지만 나오더라도 어떤 제품인지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가능.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해 분석하고 지금의 관심사를 더욱 빠르게 검색해 제공하는 'RED (Realtime Event Detection)' 시스템도 개발중. 특정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현재 반응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경우 검색결과가 이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REACT(Realtime ReACT)' 시스템 등도 특징.

다음카카오의 경우 6월 중으로 카카오톡에 모바일 검색을 위한 '카카오톡 샵(#)' 검색을 제공할 계획. 카카오톡 채팅 중 별도의 앱이나 웹브라우저 전환 없이 대화 입력 창에 새롭게 신설된 샵(#) 버튼을 눌러 원하는 키워드를 바로 검색할 수 있음. 검색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카카오톡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창을 닫지 않고도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모바일 검색을 제공한다는 방침.

업계가 모바일 검색을 강화하는 이유는 당연히 PC보다 스마트 기기에서의 검색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입맛에 알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한편 PwC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광고 시장은 2014년 1,354.2억달러(약 150조원)에서 매년 12.1%씩 증가해 오는 2019년 2,398.7억달러(약 2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17년에는 TV 시장을 넘어서 최대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

갤럭시S6 덕에 휴대폰 수출 급증, 아이폰6, 안방서 여전히 강세

오랜만에 휴대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갤럭시S6 등 신제품 효과가 주요인.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6의 돌풍은 여전히 거센 것으로 나타남.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휴대폰(부분품) 수출은 27.4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6.6% 증가.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부분품을 제외한 스마트폰 수출만 놓고 보면 무려 8개월만에 상승반전. 5월 스마트폰 수출은 12.2억달러로 18.6% 증가. 월간 스마트폰 수출이 1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5개월만. 휴대폰 무역수지도 19.6억달러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성적. 스마트폰 수출이 상승반전한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LG전자의 G4 등 전략 프리미엄폰 판매가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됨. 미래부는 당분간 신제품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등장한 아이폰6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5월 휴대폰 수입은 7.8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4.6% 증가. 올해 누적 휴대폰 수입은 37.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2% 늘어남.

그 동안 휴대폰 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0월 아이폰6 출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아이폰6가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1~9월에는 월평균 5억달러의 휴대폰이 수입됨. 그러다 아이폰6가 들어온 10월에는 9억달러로 급증하더니 11월 7.8억달러, 12월 8.6억달러, 1월 9.1억달러로 급상승세. 올해 들어서도 평균 7.5억달러 가량의 휴대폰이 수입되고 있음.

아이폰 외 다른 외산 스마트폰도 일부 수입되겠지만 아이폰6 출시 이후 휴대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됨. 아이폰의 경우 고객 충성도가 높는데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을 유통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올때마다 어느 정도의 판매는 보장됨. 출시된지 반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판매 강세를 보이고 있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2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